

화사한 봄을 맞이하는 '미소 만들기' 프로젝트

입력 : 2009-03-27 00:00 | 수정 : 2009-03-27 00:00

봄이 되면 얼었던 땅이 풀리듯,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과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달콤한 연애를 꿈꾸는 미혼 남녀들이 많다.

거리엔 혼자 보기엔 아쉬운 꽃들이 만발하고 따스한 햇볕이 집안에만 콕 박혀 있는 솔로들의 등을 떠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멋진 데이트 상대와 봄꽃놀이를 꿈꾸고 있다면 잊지 말고 필히 체크해야 할 것이 있다.

보통 야외로 나가 자연을 배경삼아 사진을 찍다 보면, 꽃의 아름다움에 질세라 활짝 웃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치아가 고르지 못하다면 데이트를 하는 내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심한 덧니가 있거나 앞니가 유난히 크고 배열이 고르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아 교정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미적인 문제나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단기간 내에 치아를 반듯하고 하얗게 만들 수 있는 치아 성형을 추천한다.

치아성형은 올세라믹과 라미네이트 치료가 있으며, 치아를 일정량 삭제 후 자연치아와 비슷한 투명도와 밝은 색상의

세라믹 재료를 치아에 접착시키는 심미보철 치료이다.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은 "치아성형은 2~3년이 소요되는 치아교정과는 달리 1~2주 정도만으로도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 수 있어 연예인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시술법이다."라고 전하며 "치아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앞니의 크기나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하므로 경험이 많은 치아성형 전문 치과를 찾아서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